

MUSIC

## 슈퍼스타 만들기

작곡가 윤이상 타계  
십주기를 맞아

유영희 | 작곡가, 음악평론가

올해로 작곡가 윤이상이 타계한 지 꼭 10년이다. 국내외에서는 이를 기리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진행중이다. 그리 풍족하지는 않지만 올 하반기에는 윤이상의 음악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윤이상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음악회는 드물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 윤이상 작품의 근원을 발견해내고 그를 기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넌센스 중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 있었다. 이 시리즈는 2000년대에 들어서기 까지 사라지지 않고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초기의 모범답안은 그야말로 심플하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의 삼 단계 작업으로 끝이 난다. 그런가하면 1990년대에는 모 그룹 사내지에서 같은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2등을 차지한 김 대리의 답안은 '김 과장과 얘기할래, 그냥 냉장고에 들어갈래?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100마리 중 99마리는 자진해서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1마리에게는 김 과장과 얘기하는 것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여 코끼리를 설득시킨다' 였다. 그러면 1위를 차지한 김 과장의 답변은? 바로 '이 대리에게 시킨다' 였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진보하여 이 정도의 이야기에 무릎을 칠 사람은 없으리라. 2000년대에 들어선 버전에 따르면 각 전공 별로 답변이 다르다 한다. 그 중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보면, 전산학과 혹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 즉 코끼리를 소스화 해서 실행시켜 에러를 잡고, 컴파일해서 냉장고 속에 코끼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라고 하며, 위상 수학과 출신은 '코끼리에게 냉장고를 먹인 뒤 코끼리의 입을 뒤집는다', 수학의 해석학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코끼리를 미분해서 넣고 냉장고 속에서 적분한다' 였고, 역시 수학의 복소변수 함수론에서 넣는 방법은 '냉장고를 복소평면의 원점에 두고, 코끼리를 냉장고 밖에 둔 다음, 1/2로 보낸 상을 구한다' 였다. 이 외에도 재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유쾌한 해답들은 무궁무진하다.

시대를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할 이러한 넌센스에도



'윤이상 명예회복 시민모임 결성' 기자회견 사진

그 함정은 있다. '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 하는가'이다. 넣는 방법들의 모색에는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왜 넣어야하는가'에 관한 성찰은 부재했다. 유추해 들어가면 이 질문에는 해결책이 절대로 없는 모순을 이미 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묘책(妙策)을 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질문자는 정답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고, 또 어떤 논리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선문답(禪問答)이 아닌 바에야 아예 물을 필요도, 답할 필요도 없음이 원칙이다. 대답을 위한 사고(思考)의 시간을 즐기자는 것은 과대망상이요, 유치함으로 진지함을 깨 보자는 치기 섞인 질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문답이 우리가 걸어가는 시대의 단면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다. 질문의 어이없음은 차치하고라도 답변에 이르는 그 다양한 과정, 그 변모의 모습들이 우리네가 겪어 온 사회의 여러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같은 논제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코끼리 - 윤이상 알기

우스갯소리로 '한국 작곡가 삼중세트'로 불리우는 이들이 있다. 안익태, 윤이상, 진은숙이 그 주인공들이다. 작곡가 안익태의 혁혁한 공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터이고, 비교적 나이는 젊지만 세계적인 작곡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진은숙 또한 충분히 그럴 대상이다. 그러나 윤이상을 떠올릴 때 마음이 어찌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격이 없다거나 하는 당치 않은 이유가 아니다. 단지 조국으로부터의 홀대 속에 이국의 땅에서 유명(遺命)을 달리한 작곡가 윤이상의 생애가 오늘날의 영광과 오버랩 되어서이다. 윤이상은 파리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난 1956년 이후 120여 곡에 이르는 작품들을 작곡했다. 그것도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

작(大作)'들이다. 그중 대부분은 각계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과 성공적인 연주로 유럽에서의 윤이상의 입지를 굳혀 갈 수 있었다. 그는 보리스 블라허나 요세프 루퍼 등의 거장에게서 작곡기법을 배웠으나 곧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곡가로 자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이상을 서양음악의 본고장에서도 주목받는 작곡가로 자리하게 한 원천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그의 음악이 서양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최첨단의 작곡기법이나 획기적인 음악적 소재를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음악에 나타나있는 동양적인 정서에 기인했을 것이며, 그래서 그치지 않는 그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모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정의감이 바로 윤이상 음악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칫 급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신의 작품에 미학적인 근거와 가치를 부여해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시켰다.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을 예술의 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으며, 그 자신과 아시아인의 정체성마저 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복합체로 작품을 승화시켰다. 이런 이유들은 이역(異域)의 사람들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이상과 그의 작품들에 열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타계하기 2년 전인 1993년, 도쿄에서는 윤이상의 75회 생일기념으로 <윤이상 75회 생일 기념 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이는 당시 일본 음악계 최대의 관심사였다. 내일(來日) 당시 한국에서의 음악회도 기획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벽에 가로막혀 무산되었고, 대신 평양에서 '기념 축제'가 열렸다. 암스테르담, 스위스의 바젤, 잘츠부르크, 취리히, 독일의 베를린, 하노버, 하이델베르크, 데트몰트, 쾰른, 뤼벡, 뮌헨 등 유럽 각지에서 기념연주회 및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주지하다시피 평양에서까지 윤이상 축제가 열렸을 정도였다.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을 예술의 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으며, 그 자신과 아시아인의 정체성마저 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복합체로 작품을 승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들에 열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윤이상의 음반이 이미 삼십여 종 가까이 음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그 중 여덟 장은 일본 레이블에 의해 출판되었다), 대학의 도서관에는 윤이상의 작품이나 생애에 관한 논문이 즐비했고 출판물도 상당했다. 그의 회고록인 『윤이상, 나의 조국 나의 음악(影書房)』 또한 일본인에 의해 먼저 출판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필자의 눈에 그것은 용납될 수 없으면서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손실(損失)' 이었다. 대학시절 내내 윤이상의 작품은 어린 작곡가들에게 전설처럼 떠돌았을 뿐,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작곡가 '이상 윤' 을 접했으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못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0년, 윤이상은 당당히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자리하고 있다.—정확히 말한다면 세계가 우리에게 윤이상의 가치를 전도(傳導)한 격이기도 하다—10년의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어떤 연유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윤이상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강조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이른바 '슈퍼스타 만들기' 다.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출범해 그 지경(地境)을 넓혀 간 <통영국제음악제>가 그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윤이상의 고향 통영에서 개최되어 매해 지속되어온 이 페스티벌은 국내 무대에 윤이상의 음악이 자리 잡게 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단 <통영국제음악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윤이상에 관한 관심은 매우 증폭되어 그의 작품들이 <범 음악제> 등의 음악제를 비롯,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되어 오곤 했다. 연주의 관심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나 그의 작품이나 생애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 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렇다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런가하면 평양에서는 벌써 20여년 전에 '윤이상 음악연구소'와 '윤이상 교향악단'이 설립되어 연구와 연주를 병행해 왔다. 탄탄한 해석력에 뒷받침된 탁월한 연주력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결론은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채 윤이상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 밀어 넣으면 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제대로 들어가는 데도 근 30년이 걸렸는데,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인 관심으로 윤이상이 원래부터 우리의 자랑스러운 작곡가였던 듯 밀어붙이기에 이제 좀 머쓱하다.

### 윤이상 타계 십주기

올해로 작곡가 윤이상이 타계(1995년)한 지 꼭 10년이다. 국내외에서는 이를 기리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일에는 예술의전당이 '윤이상협회 한국사무국'의 후원을 받아 기획한 '앙상블 모데른'의 연주회가 있었다. 독일의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은 생전의 윤이상과도 인연이 깊은 단체로 작곡가 생전부터 즐겨 그의 작품을 연주해 오고 있다. <2003 통영국제음악제>에서도 내한 공연을 가져 역시 윤이상의 절친인 오보이스트 하인츠 홀리거와 함께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 바 있다. 이날은 '8중주',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을 위한 3중주'를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이들은 3일부터 8일까지 열린 <국제윤이상 아카데미>에도 참석해 독주, 실내악 레슨과 앙상블 콘서트, 그리고 폐막 공연 등을 진행했다. <국제윤이상 아카데미>는 윤이상 10주기를 기념해 통영국제음악제 사무국이 주최했다. 기악, 지휘, 그리고 작곡부문에서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마스터클래스와 현대음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물론 윤이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임에는 두말할 나위

가 없다. 주최측은 “윤이상을 중심으로 현대음악을 소재로 한 국제 아카데미는 국내서 처음”이라고 밝히고 매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8월 15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광복 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삼인으로 선정된 안익태, 윤이상, 진은숙의 작품이 연주되는데, 윤이상의 ‘오보에 협주곡’을 코리아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장운성)와 협연한다. 독주 오보에는 수원시향 오보에 수석인 이윤정이 내정되어 한국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이 작품을 국내 무대에 올리게 된다. 8월 18일에는 KBS교향악단이 여의도 KBS홀에서 특별연주회 <아! 윤이상>을 개최한다. 재일교포 음악인으로 베를린 유학 시절 윤이상을 사사하고 일본에서 윤이상 교향곡 1,2,3번을 일본 초연한 김홍재가 지휘를 맡을 예정이며, 윤이상의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추상’,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을 연주하며 일본의 플루티스트 가토 모토아키가 협연한다.

그런가 하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윤이상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 개최되는 <경남국제음악콩쿠르>도 올해엔 ‘윤이상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그의 기일인 11월 3일에는 ‘윤이상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추모 음악회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을 초청해 열린다. 부산의 한울림 합창단도 11월 초 윤이상의 오라토리오 ‘나의 땅 나의 민족’의 국내초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 풍족하지는 않지만 올 하반기에는 윤이상의 음악을 서울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윤이상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음악회는 드물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 (위에서 거론된 음악회에서는 윤이상의 작품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들과 같이 연주된다) 오히려 해외에한 탐구적서의 기념 연주회들이 좀 더 윤이상에 관한 탐구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앙상블 모데

른은 10월 11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윤이상을 주제로 한 기획 콘서트를 갖는다. ‘해피 뉴 이어’라는 제목의 콘서트로 앙상블 모데른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 이상 개최한 시리즈 공연이다. 한 작곡가를 해설과 함께 집중 탐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날은 윤이상의 타계 10주년을 기념해 열리게 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보이스트 하인츠 홀리거의 해설과 함께 윤이상의 대표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첼리스트 고봉인은 9월 17일 독일 크론베르크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윤이상의 7개의 연습곡을, 첼리스트 발터 그림머는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공간 I’을 폴란드 초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 윤이상협회’가 11월 3~5일 베를린 콘체르트잘에서 추모 연주회를 열기로 하는 등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10여 회의 윤이상 관련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윤이상 평화재단’의 발족이라고 하겠다. 지난 3월 출범한 이 단체의 98년 이후 조국평화통일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윤이상 명예회복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명예회복 운동은 물론 위대한 예술가이자 평화통일 운동가였던 윤이상의 생애를 조명하고 기리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전 통일부 장관 박재규 이사장의 변(辨)에 의하면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양의 ‘윤이상 연구소’에 준하는 단체로 인식하면 될 듯 했다. 기자 간담회에서 박 이사장은 “윤이상 평화재단은 음반 발매와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 내한 공연, 부인 이수자 여사 한국 방문, 기념 음악회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업내용에는 윤이상 기념관 설립, 윤이상 작곡상 제정, 그리고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 초청 공연, 동백림

윤이상, 그를 정녕 위한 일이라면 그의 음악과 그의 철학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거장의 그늘’을 마련해 두어야 그 그늘아래 쉬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윤이상은 변함 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의 ‘슈퍼스타’이다.

2005(윤이상, 이응노, 천상병의 통합 작품전), 영화 <상처받은 용(가칭)> 제작, 아방가르드 밴드와 크로스오버 콘서트 투어, 친필악보와 유물 전시회를 골자로 하는 10주기 기념행사 등이 있다. 이 다양한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다면, 이는 매우 훌륭한 플랜으로 칭송받을 것이나 기실 순탄하지만은 않다. 타계 10주기 기념행사로 계획되었던 행사들 중 아직도 협의중이거나 계획중이라는 답변도 여럿 있으며, 결국 확정된 것은 11월의 추모음악회가 고작이다. 이 모든 계획들을 홍보해야 할 홈페이지조차 아직 미완성이다. 윤이상의 연보를 소개하는 간단한 항목 이외에는 재단의 소개나 설립 발의문, 대표 발기인단과 사업계획 등 실제 윤이상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다 (본디 이런 것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정작 윤이상의 음악, 악보, 논문, 사진, 동영상 등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준비중이다.

‘윤이상 타계 10주년’이라는 시기는 윤이상이 받았던 상처를 보듬어 주기에 적합한 기회다. 그런데 우리는 별 준비가 없다.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올해 재단을 만들어서 유명한 연주단체들을 서둘러 모셔다가 지급(至急)으로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인을 실망스럽게 하는 일인지 알아야 한다. ‘윤이상 평화재단’의 발기문(發起文) 가장 첫 항목에 ‘윤이상은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라고 써어 있다. 더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어지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마음이다.

급조(急造)에 대한 또 하나의 단상이 떠오른다. 몇 해 전 <통영국제음악제>에 내려갔다가 윤이상 생가를 찾아가 보기로 하고 약도를 들고 길을 나선 일이 있다. 아무리 그 동네를 다녀도 지도에 있는 곳에는 생가가 없었다. 마침 지나가던 공무원 한사람이 도와주겠노라고 하며

앞장을 섰다. 필자가 좀 전에 지나간 한 골목 모퉁이에서 그는 바로 그 장소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빨간 벽돌의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집이 있었다. 이집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내게 그는 말했다. “이거 허물고 앞으로 이 자리에 생가를 지을 거예요.” 이 또한 꼬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영시는 기어코 꼬끼리를 냉장고에 넣고야 말았다. 무려 80억 원을 들여 통영시 도천동 1,635평에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기리는 테마공원 ‘윤이상 공원’을 지을 계획이다. 또한 ‘윤이상 거리’에는 악보가 새겨진 보도블록을 깔고 가로등과 가드레일마저도 윤이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체한다고 하니 작곡가 평생의 그리움의 실체였던 고즈넉한 고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묻고 싶다.

#### 도루 다케미츠 탄생 75주년, 2006년 타계 십주기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타계한 작곡가가 있다. 도루 다케미츠(武滿徹)가 그 주인공으로 올해 탄생 75주년, 내년인 2006년에는 타계 십주기를 맞는다. 극동(極東)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윤이상과 함께 다케미츠를 떠올릴 만큼 그 작품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윤이상과는 사뭇 다르다.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지 못했던 작곡가는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펼쳤다.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음악 등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음악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어내는가 하면, 현대 음악의 영역에서는 남다른 세계를 펼쳐 보여 세인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의 인기는 사후에도 이어져 십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최절정에 이르고 있다. 작품의 빈번한 연주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의 작품 전곡이 녹음되어 해설과 함께 음반으로 출판되었으며, 그가 썼던 모든 글들 또한 다섯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출간되었다 (다케미츠 작품에 관한 연구서는 오래전에 전집으로

출판된 바 있다). 그를 회고하는 사람들의 비망록을 모은 책도 여러 권 출간 되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다케미츠는 생전과 같은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을 맞았으니 어떠하겠는가. 마치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이라도 되는 양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잡지들은 '다케미츠 재발견'이라는 취지 하에 그의 작품과 생애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신는가하면, 그의 친구들의 회고담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 안에는 지휘자는 음악가들은 물론 그가 좋아했던 야구선수나 대중가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각자 다케미츠와의 교분을 기꺼이 털어놓고 그를 그리워한다. 정치가들이 나와 그가 얼마나 일본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앞으로 그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켜 가야겠다는 포부 등을 늘어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근한 사람을 대하듯 편하게 그를 거론하고는 있지만 연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2005년에도 국내에서 50여 회 이상, 해외에서 30회 이상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다케미츠의 작품 중 대표작들은 거의 다 망라되는 셈이다. 2006년 역시 다르지 않다. 미리 준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작곡가와 그의 작품을 순수히 사랑하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진정 일본의 '슈퍼스타' 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뜨겁게' 그의 음악과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차갑고 냉철하게' 그를 기릴 줄 알고 있었다.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지 말자

다시 우리를 이야기하자. 전 국민이 그리한 건 아니지만 작곡가 윤이상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잘못된 모두가 나누어 지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부의 유명 연주자를 초청하고 테마공원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의 잘못된 보상심리일 수도 있다. 통영

에 '그를 기념할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생각과 산책로와 공원들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고향답게' 가꿔야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듯 하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윤이상의 작품의 근원을 발견해내고 그를 기리지 않겠는가. 윤이상을 정녕 위한 일이라면 그의 음악과 그의 철학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거장의 그늘'을 마련해 두어야 그 그늘아래 쉬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일전에 대중가요를 듣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딸에게 "대중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조카는 즉각 왜 그런지에 관해 되물었고, 나는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동안 변함 없는 가치에 관해 설명했다. 그 아이 왈, "이 노래도 오래됐어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라며 짐짓 심각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이는 아이와 어른의 대화라는 측면을 떠나서,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접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론(比論)의 한 유형일 수 있겠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와 결정, 그리고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아무도 모른다.

윤이상은 변함 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의 '슈퍼스타'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 낸 '슈퍼스타'는 아니다. 오히려 지수성가한 '슈퍼스타'가 우리의 위상을 세워주고 있다. 그를 위하고 기리는 일에서 튼 우리는 자꾸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식의 발상만을 거듭하고 있다. 시행착오는 이제 거부하자. 모든 일에 적합한 때는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말이다. 끊임없는 관심은 그 '잊혀지지 않을 가치'에 '탐구'를 더해 역사성을 낳고, 후대의 반석(盤石)이라는 무궁(無窮)의 생명으로 재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